

12월 13(월) / 읍 4-6

- ▶ **내용요약** : 읍기 4-5장에는 읍의 친구이자 데만 사람인 엘리바스의 첫 번째 비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자신에게 닥친 갑작스런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토로한 읍을 향해 엘리바스가 비난하며 훈계한 것이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읍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고 했다. 이에 6장에서 읍은 자신의 괴로움의 중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모질게 대하는 엘리바스에게 반박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거부할 수 없지만, 친구들의 냉정한 태도와 비난이 자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고 고백했다.
- ▶ **질문** : 읍의 한탄하는 말을 듣고 첫 번째로 비판한 사람은? (4장)
- ▶ **생각하기** : 읍의 친구들은 고난 중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를 끌어안기는커녕, 스스로 하나님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며 읍을 정죄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문자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영혼을 죽이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자.

12월 16일(목) / 읍 13-15

- ▶ **내용요약** : 읍기 13-14장에서 읍은 친구들과의 소모적 논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읍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읍은 주의 손을 자신에게 대지 마시기를, 그리고 주의 위엄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인간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며 심지어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에 15장에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읍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엘리바스는 먼저 읍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그리고 악인의 중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며 읍에게 경고했다.
- ▶ **질문** :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기도한 사람은? (13장)
- ▶ **생각하기** : 읍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그분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며 부르짖을 수는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하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12월 19일(일) / 읍 22-24

- ▶ **내용요약** : 읍기 22장에는 엘리바스의 세 번째 비난이 기록되어 있다. 엘리바스는 또 다시 읍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즉 읍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가 범한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읍이 행하지도 않은 일들까지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더 큰 심판을 당하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경고했다. 이에 23-24장에서 읍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12월 14일(화) / 읍 7-9

- ▶ **내용요약** : 읍기 7장에서 읍은 엘리바스에 대한 반박을 이어간다. 읍은 자기 영혼의 아픔으로 인해 말할 것이며,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을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자신을 내버려두시기를 원한다고 간청했다. 그러자 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은 계속되는 읍의 말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설명했다. 심지어 읍의 자녀들에 대한 추측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즉 읍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그들이 분명 의롭지 못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읍이 하나님을 찾으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9장에서 읍은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 ▶ **질문** : 읍을 비판했던 두 번째 친구는 누구인가? (8장)
- ▶ **생각하기** : 빌닷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리석은 정죄의 말이었다. 듣기에 좋은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지혜와 생명의 진리를 담고 있는지를 문맥 안에서 살펴봐야 한다.

12월 17일(금) / 읍 16-18

- ▶ **내용요약** : 읍기 16-17장에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비난에 대한 읍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다. 읍은 먼저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읍은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하며 자신에게 담보물을 주시길 간청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으니, 그들을 높이지 않으시기를 구했다. 이에 1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두 번째로 읍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빌닷은 자신의 주장을 다시 반복하면서, 악인과 같은 말과 행동을 일삼는 읍에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한다.
- ▶ **질문** : 읍은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 무엇을 주는 위로자라고 비난했는가? (16장)
- ▶ **생각하기** : 읍의 친구들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수학 공식과 같은 원리와 원칙에 갇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에는 생명이 없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5)"고 교훈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의 손을 잡고, 조용히 위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하자.

읍은 자신 또한 죄인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였음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읍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을 변호할 수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도 없었다. 읍은 그는 그저 고난 중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읍은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자신 또한 고난을 통해 더욱 온전해질 것을 말이다.

12월 15일(수) / 읍 10-12

- ▶ **내용요약** : 읍기 10장에서 읍은 자신의 말을 계속 이어갔다. 읍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했다.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을 상대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금 읍은 살아있음을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시길 간구하게 되었다. 그러자 11장에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읍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소발은 당시 지혜자들과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읍의 입장을 받아들이 수 없었다. 그래서 소발은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고 하면서 읍의 회개를 촉구했다. 이에 12장에서 읍은 자신에게도 그러한 전통적인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이해가 있음을 말하며, 그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 ▶ **질문** :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12장)  
"지혜와 권능이 ( )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혈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 ▶ **생각하기** : 하나님의 섭리는 인과응보라는 단 하나의 원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만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이끄는 단 하나의 원리임을 인정해야 한다.

12월 18일(토) / 읍 19-21

- ▶ **내용요약** : 읍기 19장에는 수아 사람 빌닷의 두 번째 비난에 대한 읍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다. 읍은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고 했다. 그리고 혹 그에게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죄는 읍의 친구들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즉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20장에서 나아마 사람 소발은 두 번째로 읍을 비난했다. 그는 악인이 급격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가 기뻐하는 것을 결코 보존하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그의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읍은 21장에서 악인의 영혼이 자주 목격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며 소발의 지혜가 온전하지 못함을 증명했다.
- ▶ **질문** : 지혜자들의 교훈과 달리, 읍은 누가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다고 했는가? (21장)
- ▶ **생각하기** : 읍은 자신의 친구들이 말로 자신을 산산조각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언어'는 그 어떤 물리적 도구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서운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야고보서 3장을 읽으라)

- ▶ **질문** : 아래 빈 칸을 채우시오. (23장)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 )하신 후에는 내가 ( ) 같이 되어 나오리라"
- ▶ **생각하기** :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의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선부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눅 13:1-5).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